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지난해의 달력은 버리고 새로운 해의 달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달력은 언제부터 우리의 삶과 함께 했을까?

글 편집실

해와 달이 만든 역법 달력

천체가 만들어낸 시간의 규칙

달력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구분하고 측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규칙적인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오래전 인류는 천체의 주기적인 운행의 규칙적인 현상으로부터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역법(calendar, 曆法)'을 발명하게 된다. 즉,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별들의 변화와 움직임을 측정하고 기록해 이를 바탕으로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겼다. 여기에서 역曆에 해당되는 것은 밤낮이 바뀌는 것과 사계절의 변화,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가 대표적이다. 태양과 지구, 달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스스로 돌고 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주기적인 운동을 보고 하루나 한달, 또는 1년의 길이를 정했다. 년(年), 월(月), 일(日)은 각각 독립된 3개의 주기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역서, 달력인 셈이다.

달력(calendar)은 라틴어로 '회계 장부'라는 뜻의 'calendarium' 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제관祭官이 초승달을 보고, 피리를 불어 월초月初임을 선포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매월 초하루의 날짜를 'calend'라고 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초승달이 하늘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조명 장치가 좋지 못했던 당시에는 밤길을 밝히기에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월초가 중요한 기점으로 생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달력은 기본 주기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역법이 달라지는데 크게 태양의 운행에 기반한 태양력(solar calendar/양력), 달의 운행에 기반한 태음력(lunar calendar), 그리고 태음력에 태양력의 요소를 고려한 태음태양력(lunisolar calendar/음력)으로 구분된다.

태양과 달, 서로 다른 역법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는 태양력은 회귀년(tropical year, 태양이 황도상에서 분점~분점까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365.2421897일)을 기초로 1년을 정하고 이를 다시 12개로 나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이 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시행한 율리우스력은 1년의 길이가 365.25일이다. 따라서 평년을 365일로 하고 4년마다 윤일을 넣은 윤년을 둔다. 그러나 1회귀년과 약 0.0078일 차이가 있고, 128년마다 약 1일의 차이가 생긴다. 이에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한 3월 21일과 약 10일 정도 차이가 생겨나게 되어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그레고리력으로 단행하게 된다. 그레고리력은 1년이 354.2425일로 400년에 97회 드는 윤년을 둔다.

태음력의 대표적인 예는 이슬람력이다. 태음력의 1년은 12개월이데 1개월은 삭망월(synodic month, 합삭~합삭, 또는 보름~보름까지, 29.53059일)을 기초로 29일 또는 30일이다. 따라서 1년은 354일로 1회귀년과 11일 정도 차이가 나서 시간이 갈수록 실제 계절과도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2017년 라마단은 양력 5월 27일부터 시작되었으나 2027년 라마단은 양력 2월 8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태음태양력은 태음력에 계절의 변화를 고려한 역법으로 중국력, 유대력 등이 대표적인 예로 현재 우리가 음력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중국력에서는 태양의 일주운동에 기반한 24기(12절기와 12중기)를 활용해 계절의 변화를 반영했다.

우리나라 달력의 변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역법을 차용하여 왔는데 삼국시대에는 원가력(元嘉曆), 무인력(戊寅曆), 인덕력(麟德曆), 대연력(大衍曆), 고려시대에는 선명력(宣明曆), 수시력(授時曆), 조선시대에는 대통력(大統曆), 시헌력(時憲曆) 등을 사용하였다. 이후 조선 세종 때 대통력에 기반한 역법인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을 편찬하게 된다. 하늘의 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임금의 통치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모범적인 국가를 세우고 싶었던 세종은 따라서 일식 시간이 15분 오차가 생겨나고 역법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이에 조선 실정에 맞는 정확한 역법을 제정

하기 위하여 정초 등의 학자들에게 명해 수시력을 연구하여 편찬하게 된 것이 칠정산내편인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력은 효종 당시 도입된 시헌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시헌력은 중국에 온 서양 선교사인 아담샬(Adam Schall)이 17세기에 만들었다는 점이다. 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은 고종황제가 1896년부터 시행했으며, 1898년에는 시헌력을 명시력으로 개칭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현재까지 음력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 19세기인 1868년 메이신 유신 이래 음력을 전면 폐지하고 양력만을 사용해 왔다. 때문에 일본은 설날도 1월 1일에 쇠며 우리나라 추석처럼 가장 큰 명절인 오봉(お盆) 역시 음력 7월 15일에 지내던 것을 현재에는 양력 8월 15일에 지낸다.

조선의 독자적 역법 칠정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중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중국의 달력을 사용했는데, 1433년, 세종은 신하들에게 명나라의 대통력을 연구해 역법의 원리를 완전히 익히도록 지시했다. 그 후 명나라 원통이 편찬한 『대통통궤(大統通軌)』의 오류를 조금 고쳐 조선의 독자적인 역법인 『칠정산내편』을 편찬했으며, 이순지, 김담 등이 아라비아 역법을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교정한 『칠정산외편』을 만들었다. 이는 애민(愛民)정신으로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자 절기와 일식, 월식을 예보하여 농사를 도운 천문역법 칠정산, 기상 재난에 대비한 수표측우기, 생활의 길잡이가 된 자동 시보장치 자격루 등 백성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발명품들이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리더 지휘 아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독자적인 역법을 바탕으로 한 달력 제작이 힘들어지기도 했고, 선조는 명군이 조선력의 사용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해 달력 만드는 것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